

활짝 핀 봄 2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올라 벚꽃이 분홍빛 꽃망울을 터 뜨린 가운데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이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지역 낮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으며 4일까지 맑고 포근하다가 5일에는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배달 청년 5명중1명 폭언·성희롱 시달려

광주청년유니온 조사…71.5% 식사시간도 없이 근무

광주지역 청년 배달 노동자 5명 중 1명 은 업무 중 폭언이나 폭행·성희롱 등을 당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청년 노동자조합인 '광주청년 유니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이하 배 달 노동자) 21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 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배달 노동자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의 경우 가해자가 고객인 경우가 전체의 65.5%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자(20.5%), 고용주(14%)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폭언을 경험한 노동자 중 95.5% 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고 응 답했으며, 폭언 등에 대한 해소 프로그램 이나 교육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8. 5%로 집계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배달 노동자의 71.5%가 식사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주의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비율이 39.4%를 차지했으며, 초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도 39.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0.8%에 달했다. 특히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83.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지급 형태는 시급제가 42.4%를 차지했으며 실적제(38%), 일당제(10.3%), 월급제(9.3%)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급제의 경우 평균 시간당 7139원, 실적제의 경우 건 당 평균 3387원, 일당제의 경우 하루 평균 6만4531원, 월급제의 경우월 평균 172만3333원으로 나타났다.

배달 노동자들의 32%가 배달 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을 꼽았다. 배달업종 중 '배달대행업체'에서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해 무리한 운전' (5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달 과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시간 내 배달 폐지'(29.8%)와 '수당 시스템 개선'(14.7%)으로 조사됐다.

광주청년유니온은 ▲배달업 시장 규제 정책 ▲노동시장 보호 방안 ▲특별 근로 감독과 모니터링 ▲근로기준법 준수 ▲노 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 ▲시민사회의 '빨리빨리 배달 거부 선언 캠페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여수 두살아들 살해 부부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영장 "시신 바다에 버렸다" 자백 지적재조사 편의···뇌물수수 혐의

두살배기 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가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 다"고 뒤늦게 자백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영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 혐의로 A(26)씨 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 찰이 불구속 송치했던 아내 B(21)씨도 시 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맞아 숨지는 동안 지켜봤으며, 시신 훼손과 유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아들을 여수 신덕동 바닷가 야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 으나, 검찰에서는 아내와 함께 시신을 훼 손해 바다 여러 곳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 복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적재조사 편의…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사전구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제3자 뇌물취득 과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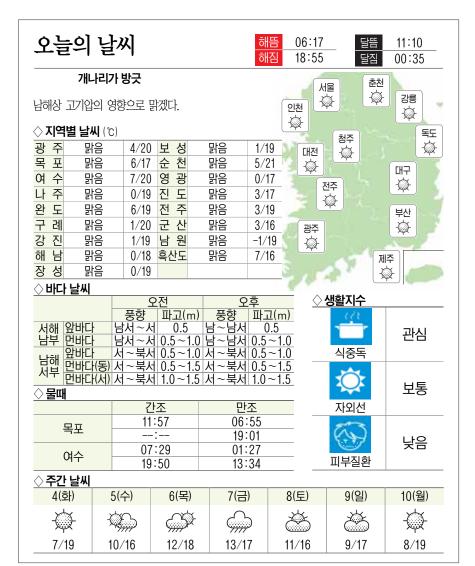
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 난 2015~2016년 사이 직원을 통해 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당시 김 군수의 수행비서와 지적담당 공무원 등 무안군청 공무원 2명 을 구속했다.

검찰은 업체에서 돈을 받은 지적담당 공 무원으로부터 수행비서를 통해 김 군수에 게 수천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를 벌여왔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도심 속 생태학습장 '효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체험장·피크닉장 등 조성 '인기'

광주환경공단 효천하수처리장(남구 임암동)에 조성된 '효천 물빛 노닐터'가 새로운 생태 환경교육의 장(場)으로 거 듭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 효천·진월 택지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2만 t(1일)을 처리하고 있는 효천하수처리장에는 시민들을 위한 '효천 물빛 노닐터'가 조성되어 있다. 효천 물빛 노닐터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스타디움<사진>'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규모 콘서트나 행사가 가능하도록 '야외 공연장'도 조성돼 주말이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시민을 위해 하수처리장 내에 '견학 홍보관'과 '피크닉장'을 마련, 도심 속에서 생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은 지역 주민이 기 피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지만 효천하 수처리장은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5단 계 악취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시민 맞춤 '물빛 노닐터'도 조성하여 환 경기초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하 수처리의 전반적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 록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친환 경 체험학습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 효천하수처리장의 멀티 스타디움 및 야외 공연장과 견학 프로그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